

# 근대 일본 미디어에 나타난 신여성 논의의 지형

손지연\*

## 〈차례〉

1. 서론
2. 남성중심 미디어의 신여성 논쟁
3. 신여성들의 ‘노라’ 논쟁
4. 일본적 젠더의 특수성 -한국과의 대비를 통하여
5.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의 관심은 근대 일본의 신문·잡지 미디어가 생산하고 유포한 신여성 논의를 면밀히 살펴보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누가 어떠한 의도로 신여성을 유형화하고 본질화하고자 했는지, 나아가 신여성 논의가 균질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것은 또 동시기 식민지 조선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함의를 갖으며 일본 젠더의 특수한 상황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근대 일본에서 전개된 신여성 논쟁은 근대 국민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기획되고 거기에 맞게 구획된 측면이 농후하게 보인다. 이때 ‘현모양처’와 ‘모성’은 그 좋은 사상적 자원으로 활용되었음은 물론이다. 우선 『태양(太陽)』, 『신초(新潮)』 등 당대 메이저급 미디어가 기획하고 유포한 신여성을 둘러싼 논의는 표면적으로는 찬반양론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전개된 것처럼 보이나 실은 찬성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론자나 반대론자나 기존의 남성중심 사회규범 및 젠더질서를 견고하게 유지·강화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는 양자가 공통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기에는 담론의 생산자가 남성 주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발현하는 장(場)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났다. 즉 여성의 주체성을 획득하고자 신여성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던 논의, 이를테면 정조 문제, 낙태와 피임 문제, 매춘 문제 등은 일본의 여성해방사상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으나, 신여성들이 산출한 논리 또한 위에서 언급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정황도 함께 포착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일본 젠더가 갖는 특수한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은 동시대의 식민지 조선의 경우와 대비하여 살펴볼 때 더욱 문제적이다. 예컨대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들의 경우 당시 유행하던 ‘민족 개조론’의 범주를 그대로 추인하여 식민지 현실을 타개하고 민족의 자립을 위한 방편으로서 여성을 가정 내 ‘현모양처’의 역할로 제한할 것을 노골적인 형태로 주장하였다면, 일본의 경우는 ‘국가’와 무관한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 이면에서 ‘현모양처주의’의 강화를 통해 ‘민족의 어머니’, ‘국가적 모성’과 같은 허구의 관념을 산출하여 남성·제국주의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견고하게 뒷받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젠더 위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여성담론이 내포한 보다 복합적 측면을 노정한 것이라 하겠다.

핵심어: 한·일 신여성담론, 세이토, 신여자, 현모양처주의, 국가적 모성

## 1. 서론

신여성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10년대는 근대 일본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신여성담론 역시 여성을 근대 국민국가로 통합해가려는 남성·제국주의적

욕망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논의를 주도해간 이들이 남성 지식인층이고 당대 메이저급 미디어를 통해 유포해간 것은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한다. 『도쿄아사히(東京朝日)신문』, 『요미우리(讀賣)신문』, 『국민신문』, 『태양(太陽)』, 『신초(新潮)』, 『중앙공론(中央公論)』 등 주요 신문 및 잡지들은 앞다투어 신여성 관련 특집기획을 편성하여 격렬한 찬반논쟁을 벌였다.<sup>1)</sup>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 주체가 스스로를 ‘신여성’이라고 선언하고 여성 해방사상과 섹슈얼리티문제를 정면에서 응시하려는 움직임이 잡지 『세이토(靑鞆)』(1911.9-1916.2)를 중심으로 일었다. 이들은 서구의 여권운동을 활발히 소개하는 한편 『부록 노라』(제2권제1호)를 마련하여 일본 여성들이 직면한 상황을 ‘노라’에 대입시켜 다양한 논의를 개진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남성중심 미디어가 생산하고 유포한 신여성담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이에 저항하며 능동적으로 자신들만의 논의를 개진해왔을까? 그것은 남성중심 미디어의 논조와 어떻게 다르고 같을까? 물론 남성 지식인들의 발언에 촉발된 부분도 있겠지만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어떠한 시도를 했는지 그 의미구조를 파악하는 일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신여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잡지 『세이토』에 집중되어 왔다. 초기의 논의는 일본 여성사에 있어 『세이토』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거나 주요 동인들의 생애와 작품을 소개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sup>2)</sup>

1) 당시 신여성 논의의 과열 양상은 다음의 신문·잡지의 간행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하, 인용문에서는 잡지명만 표기하기로 한다.

『신초(新潮)』 『신여성(新しい女)』(1912.9)

『태양(太陽)』 『근래의 부인문제(近時之婦人問題)』(1913.6)

『중앙공론(中央公論)』 『부인문제호(婦人問題号)』(1913.7)

『도쿄아사히(東京朝日)신문』 『여학생(女學生)』(1913.2.28-3.24)

『요미우리(讀賣)신문』 『신여성(新しい女)』(1912.5.5)

『국민신문』 『이른바 신여성(所謂新しい女)』(1912.7.12-7.15)

2) 대표적인 논의로는, 井手文子 『靑鞆の女たち(海峽書房, 1975), 小林登美枝編 『靑鞆』セレクション: 『新しい女』の誕生(人文書院, 1987), 堀場清子 『靑鞆の時代: 平塚らいてうと新しい女たち』(岩波書店, 1988), 堀場清子編 『『靑鞆』女性解放論集』(岩波書店, 1991) 米田佐代子·池田恵美子編 『『靑鞆』を學ぶ人のために』(世界思想社, 1999), らいて

이후 문학, 젠더, 사상사 등의 측면에서 신여성을 조명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이 가운데 무타 가즈에(牟田和恵)와 오코시 아이코(大越愛子)의 논의는 근대 일본의 젠더 이데올로기와 국민국가의 관련성을 명쾌하게 분석한 주목할 만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sup>3)</sup> 한국의 경우는, 19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로 여성문제와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신여성과 근대성의 관련성에 주목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세이토』를 분석하거나 한·일 비교연구를 시도한 논의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sup>4)</sup> 본 논문에서는 1910년대 미디어에 나타난 신여성 관련 기사를 총체적으로 시야에 넣어 근대 일본의 여성 주체 형성과정에서 보이는 불균형과 불안정성의 기원을 탐색하고, 이를 한국(식민지 조선)의 경우와 대비하여 일본적 젠더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 2. 남성중심 미디어의 신여성 논쟁

‘신여성(新しい女)’이란 말은 1880년대 후반 잡지 『일본신부인(日本新

う研究會編 『『靑鞆』人物事典：110人の群像』(大修館書店, 2001) 등이 있다.

- 3) 주요 논의로는, 佐々木英昭『『新しい女』の到来』(名古屋大學出版會, 1994), 牟田和恵『戦略としての女』(新曜社, 1996), 牟田和恵『戦略としての女』(新曜社, 1996), 大越愛子『近代日本のジェンダー』(三一書房, 1997), 孫知延『民族と女性, ゆらぐ<新しい女>』(『日本文學』49-5, 2000.5), 飯田祐子編『『靑鞆』という場: 文學・ジェンダー・『新しい女』』(森話社, 2002), 岩田ななつ『文學としての『靑鞆』』(不二出版, 2003), 『新しい女』研究會編 『『靑鞆』と世界の『新しい女』たち』(翰林書房, 2011) 등을 들 수 있다.
- 4) 『세이토』를 분석한 논의로는, 이지숙『『세이토(靑鞆)』에 나타난 일본 근대 여성들의 글쓰기 양상 -田村俊子와 平塚らいてう의 담론을 중심으로-』(『일본문화학보』 제37권, 한국일본문화학회, 2008), 박유미『『세이토(靑鞆)』의 ‘모성’담론』(『일어일문학』 제39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08), 한·일 관련양상을 시도한 논의로는, 김수진『신여성현상의 세계적 차원과 사회적 차이 -영국, 일본, 그리고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한국여성학』 제22권, 한국여성학회, 2006), 문옥표『한국과 일본의 ‘신여성’ 비교를 위한 시론』(『신여성』, 청년사, 2003) 등이 있다.

婦人)』(1888년 9월)에 기재된 ‘The New Woman’의 번역어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거의 언급되는 일이 드물었고 일본 사회에 유행담론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은 1910년 7월,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가 오사카(大阪)시 교육회 석상에서 「신여성(新しい女)」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sup>5)</sup> 쇼요는 얼마 후 이 강연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단행본 『이른바 신여성(所謂新しい女)』(精美堂, 1912)을 간행하였다.

이 책의 서두에서 쇼요는 “신문지상”이나 “세간의 화두”로 빈번히 회자되고 있는 ‘신여성’이라는 말은 정확한 해석 없이 제멋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신여성이란 대체 어떤 여자를 이르는 말인가?”라는 핵심을 찌르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신여성이란 대체 어떤 여자를 이르는 말인가? (...) 혹자는 신여성을 앞으로 자연적으로 나와야 할 신시대의 여자라 하고, 혹자는 앞으로 꼭 나와야 할 이상적 여자라 하며, 혹자는 여자답지 않은 여자, 혹자는 누세의 폐습에 대한 반동으로 생긴 반항적인 혁명 부인, 혹자는 과도기의 무질서한 사회가 낳은 일종의 혐오스러운 자만녀(自慢女)라고 정의한다.<sup>6)</sup>

그는 또 이렇듯 의견의 분분한 것은 신여성이라는 실체가 아직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현재 신여성이라 불리는 자들도 “신문이나 잡지, 선각자의 설이나 외국의 근세소설과 외국의 근세 각본 등으로 그 성격을 상상하거나 그 편영(片影)을 파악한 것에 불과”<sup>7)</sup>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쇼요를 비롯한 당대 남성 지식인들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신여성 문제에 왜 그토록 촉각을 세웠던 것일까? 의외로 그들의 관심은 신여성 문제 ‘밖’에 놓여 있었을지 모른다.

5) 平塚らいてう, 『元始, 女性は太陽であった』 下巻, 大月書店, 1972, 370쪽.

6) 坪内逍遙, 『所謂新しい女』, 精美堂, 1912, 1-2쪽.

7) 坪内逍遙, 위의 책, 2쪽.

이 시기 신문·잡지 미디어의 공통점은 열띤 논의를 펼친 주체가 당사자인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점이다. 주요 논객은 우치다 로안(内田魯庵), 시마무라 호게쓰(島村朧月), 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 아마지 아이잔(山路愛山), 바바 고쵸(馬場孤蝶) 등으로 평론가와 저널리스트들이다. 이 외에도 문부대신을 비롯한 자작(子爵), 백작(伯爵), 대학총장, 기독교 관계자, 문학자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남성 지식인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신여성에 대한 평가가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나뉘며 이 가운데 반대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점이다.

우선 소수이지만 찬성파의 주장은, 신여성의 등장은 타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봉건적 인습·구습타파, 여성의 개성신장,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적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치다 로안은 「‘신여성’의 제일의 노력 -인습의 풍속습관을 구축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 백년 간 여성을 억압해온 사회도덕과 관습을 우선 타파하라고 역설한다. 특히 구여성들의 머리모양인 “시마다(島田)나 마루마게(丸鬘)”, “다도나 꽃꽃이” 등은 젊은 여성들에게 어울리지 않으며 이러한 “봉건시대의 유물인 여성의 풍속”을 전부 “구축(驅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8)</sup> 후지시로 소진(藤代素人)은 가장(家長) 중심의 봉건적 가족제도를 비판하고, 가정(가족)문제는 남녀공통의 문제이며 여성에게만 현모양처가 되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현부현부(賢夫賢父)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sup>9)</sup> 마쓰모토 마타타로(松本亦太郎)는 “노라와 마그다의 각성”이 아직 미성숙하여 “소각성(小覺醒)” “초단각성(初段覺醒)” 수준인 만큼 일본의 신여성(여자문학가)들 역시 “장래의 대발전” “대각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시사하며 “젊은 여성에게 충분한 소양을 쌓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sup>10)</sup> 시마무라 호게쓰는 「개성독립이 근본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성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결혼문제”와 “복종문제”라고 지

8) 内田魯庵, 「『新しい女』の第一の努力 因習の風俗習慣を驅逐せよ」, 『太陽』, 13-14쪽.

9) 藤代素人, 「婦人問題管見」, 『太陽』, 17쪽.

10) 松本亦太郎, 「若い女の将来」, 『太陽』, 56-57쪽.

적하고 이것은 여성이 “자각”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나, 양성의 힘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게 되면 결국은 “국가의 쇠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울러 여성의 “개인적 자각을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고루한 것”이라고 비판한다.<sup>11)</sup>

아베 이소오(安部磯雄)는 여성의 참정권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는 영국을 비롯한 서양 선진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문을 품는 자가 적지 않은 듯한데, 나는 아직 결과가 나쁘게 보고된 것을 들은 바가 없다”<sup>12)</sup>고 말하며 일본에서도 여성의 참정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여성을 환영한다”라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의 글도 보인다. 그는 여성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자각”, “개성 도야”, “인격 완성”, “경제적 독립의 각오”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세이토샤 동인 가운데 나카노 하쓰코(中野初子)가 “다비(足袋, 일본식 버선-인용자) 가게”<sup>13)</sup>를 열어 장사를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독려했다.

이상의 논의가 갖는 유효성은 여성해방에 대한 인식을 남성 지식인들이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현모양처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경제적인 면이든 법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남성의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여성이 ‘주체’가 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안으로 제시한 봉건적 인습의 타파, 여성의 개성신장, 직업 선택 및 경제적 독립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성중심의 견고한 사회구조부터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이루지기 힘들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철저하게 남성중심으로 구축되어온 제도, 법률, 남녀관계 등을 남성 스스로가 개선하려는 의지는 누락되고, 오로지 여성에게만 ‘전력을 다하라’ ‘도덕과 법률을 타파하라’라고 외치는 데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여성해방이라는 실천적

11) 島村胞月, 「個性獨立が根本問題」, 『太陽』, 74쪽.

12) 安部磯雄, 「婦人參政權問題」, 『太陽』, 58쪽.

13) 永井柳太郎, 「「新しい女」を論ず」, 『中央公論』, 39-40쪽.

문제를 피상적인 계몽주의 담론 안으로 수렴해 버리는 한계를 노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신여성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대파의 주장은 어떠했을까? 이들은 신여성의 등장을 정상계도에서 벗어난 병적인 현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서양에 대한 무분별한 모방과 허영심, 성적 일탈(타락) 등으로 여성의 본분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여성의 본분은 현모양처, 부부화합에 있으며, 생물학적으로 보나 유전학적으로 보나 민법상으로 보나 남성이 여성 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논의는 무엇보다 전통적 남녀역할의 붕괴, 즉 현모양처주의의 부재를 염려하고 이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데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도쿄아사히신문』(1913.2.28-3.24)의 「여학생(女學生)」이라는 제목의 연재물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 여기서는 여성교육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여학교 출신의 신여성이 여성 타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다. 히라쓰카 하루코(平塚明子, 라이쵸의 본명-인용자), 나카노 하쓰코(中野初子), 오다케 고키치(尾竹紅吉), 야스모치 요시코(保持研子) 등 세이토샤 동인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 여학교가 “정상 계도에서 벗어난 두 방면의 여학생”, 즉 “예의 여배우(마쓰이 스마코 -인용자)”와 “신여성”을 배출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들 여학교는 새로운 여성교육을 표방하는 듯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결혼 거부, 가출, 불량, 정신병, 동성애, 도박과 같은 부정적인 여성상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우치다 로안은 「이른바 신여성의 해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여성의 “대다수는 경박한 뇌동자(雷同者)로 참된 부인의 인격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 그들의 튀는 언행이나 행동은 진정으로 그렇게 느껴서 필연적으로 발로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일종의 유행으로 단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현모양처주의라는 것은 문부(文部) 당국자를 비롯하여 도학자 선생, 교육가 선생들도 일찍이 나쁜 것이라고



참회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것을 여성교육의 유일한 모토로 삼아 고집하고 장려”<sup>14)</sup>해 온 것이라며 현모양처주의의 당위성을 설파한다. 이 글은 앞서 언급한 『신여성』의 제일의 노력 -인습의 풍속습관을 구축하라, 라는 글에서 피력한 논조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 흥미롭다.

사토 고로쿠(佐藤紅綠)의 신여성 비판은 이 보다 한층 직설적이다. 그는 지금의 “세이토 일군의 여류”들은 “광적(狂的)인 여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여자(臭き女)”라고 단언하고, 이들은 새로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고 말한다. 또한 남자에게 반항하는 자, 구(舊)관습에 반항하는 자가 신여성이라는 인식은 옳지 않으며, 이런 면에서 “노라”는 “형편없는 여자”에 불과하다고 폄하한다.<sup>15)</sup> 노라나 마그다 등 서구에서 유입된 신여성 유형이 사토 고로쿠를 비롯한 당대 일본 남성 지식인들의 심기를 특히 불편하게 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신여성의 긍정적인 예를 근대 이전의 여류작가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와 세이쇼 나곤(清少納言)에서 찾고 있는 점이다. 그는 “무라사키 시키부, 세이쇼 나곤 등은 그 당시의 신여성”이라고 언급하고 “이들은 어디까지나 여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았고 억지로 남자 흉내를 내려고도 하지 않았다”<sup>16)</sup>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들 남성 지식인의 공통된 고민은 전통적 남녀역할, 즉 현모양처주의에 기반한 젠더질서를 어떻게 하면 일본사회에 유지·온존시킬 수 있는가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신여성은 일본사회의 규범 및 젠더질서를 교란시키는 상징적 존재로 기능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미야케 세쓰레이의 『문제의 제공자로서의 신여성』이라는 제목의 다음 글을 보자.

모리타에 대한 하루코의 태도를 보면 (그녀가) 얼마나 색정광(色情狂)과 유사한지 알 것이다. 색정광에게는 남자는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여자는

14) 内田魯庵, 「所ゆる新しい女の解釈」, 『新潮』, 19-20쪽.

15) 佐藤紅綠, 「新しき女即ち臭き女也」, 『新潮』, 21쪽, 23쪽.

16) 위의 책, 24쪽.

남자에게 상처를 주고 기뻐하는 병적인 특징이 있는데, 하루코의 남자를 대하는 태도도 이와 닮아 있다. (...) 하루코가 이러한 사상을 갖고 이러한 주장을 하고, 행위를 하는 것은 건전하다든가 병적이라든가 하는 논의와는 별개로 이러한 타입의 여자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새로운 예시와 문제를 제공하고 연구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득이 있었음은 확실하다. (...) 그러나 단순히 하루코를 따라서 이를 모방하고 뭇도 모르고 신여성인척하는 여자들은 도대체 어찌려는 것일까? (...) 하루코 한 사람이나 세이토 일파만의 일이 아니라 혹여 일반 여성들이 실행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모든 여성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sup>17)</sup>

히라쓰카 라이쵸와 모리타 소헤이(森田草平) 사이에서 있었던 이른바 정사미수사건='바이엔(煤煙) 사건'을 들어 라이쵸를 "색정광"으로 규정하고, 라이쵸와 "세이토 일파"를 모방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게 되면 일본사회는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은 당시로서는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바바 고쵸(馬場孤蝶)는 「신여성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직설적인 어법으로 신여성 비판에 앞장섰다. 그는 여성의 단점은 감정적이고 여성 특유의 연약함이라고 지적하고, 여성들 사이에 만연한 "질투" "노예근성" "온화함을 가장한 종래의 위군자(僞君子)" 등은 근절해야 할 "악폐(惡弊)"라고 주장한다.<sup>18)</sup> 아키토모 오키토모(秋元興朝)는 「천성을 무시한 신여성」이라는 제목에도 드러나듯이 "남녀는 각각 그 천성"이 다르며 여성의 본분은 어디까지나 "현모양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sup>19)</sup> 따라서 여성이 자신의 장점을 버리고 남성의 장점을 모방하거나, 혹은 "남자를 능가"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천성을 무시"한 일이며 이런 면에서 근래의 "부인운동은 부인의 천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한다.<sup>20)</sup> 우치다 고사

17) 三宅雪嶺, 「問題の提供者としての新しい女」, 『太陽』, 49-50쪽.

18) 馬場孤蝶, 『新しき女を歓迎せん』, 『新潮』, 28쪽.

19) 秋元興朝, 「女の天性を無視したる新しい女」, 『太陽』, 28쪽.

이(内田康哉) 역시 남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을 철저히 구분하여 여성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선천적 임무”이며, 남성은 전쟁을 수행하고 국가를 보호하는 “병역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sup>21)</sup> 아울러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재산을 소유하고 상당한 학문지식을 겸비”하거나 “독신자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여성”에 대해서만 조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sup>22)</sup>

다케베 돈고(建部遯吾)는 ‘신여성(新しい女)’이라는 말 대신 “새로운 척하는 여자(新しがる女)”라는 표현으로 신여성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여성해방 내지는 여성참정권 요구는 “서양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생리적 심리적 특성”으로 볼 때 여성의 천직은 “가정”에 있으며, 그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의 병적 현상”이라고 단언한다. 이어서 “중대한 천직을 자각하는 여성”, 나아가 “세계적 대국민 일본인”에 적합한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여성을 양성할 것을 역설하였다.<sup>23)</sup>

이 ‘여성=현모양처=가정’이라는 구도는 신여성을 둘러싼 논의가 유행하기 이전, 요컨대 러일전쟁(1904-1905)을 전후한 시기부터 근대적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다.<sup>24)</sup> 그런데 ‘여성=현모양처=가정’이라는 구도가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곧바로 ‘국가’로 수렴되어 가는 양상은 1913년을 전후한 시기의 신여성담론만큼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우에스기 신기치(上杉眞吉)가 『새로운 현모양처주의』라는 타이틀로 여성의 사회적 임무와 현모양처의 자격을 말하

20) 秋元興朝, 위의 글, 28쪽.

21) 内田康哉, 『婦人界の新傾向』, 『太陽』, 48쪽.

22) 内田康哉, 위의 글, 48쪽.

23) 建部遯吾, 『社會學者の觀たる婦人問題』, 『太陽』, 43-45쪽.

24) 민본주의의 주장으로 잘 알려진 가야하라 가잔(茅原華山)은 여성교육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여자교육근상(女子教育近狀)』(『万朝報』, 1910.11.1)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10년 간 특히 러일전쟁 후에 여자교육”이 “현모주의의 이름을 덮어쓴 보수사상의 승리”라고 단언하며, “순종, 정절, 겸억(謙抑)” 등 남성중심적이고 억압적인 여자교육의 세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고, 여성의 충군애국(忠君愛國) 정신을 역설한 다음 내용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사회에 있어 부인의 임무는 무엇일까? 부인의 일은 남자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부부상화(夫婦相和)라는 말이 교육칙어 안에도 있듯이, 실로 부부가 화합하여 부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충분히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하고, 농부는 농부, 목수는 목수로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 그렇다고 옛 방식대로의 현모양처주의는 안 된다. 부인은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남편을 돕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커다란 천직이므로, 예전처럼 단순히 남자에게 복종하고, 집에서 요리라든가 재봉을 하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만으로는 부인으로서의 임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오늘날의 부인은 충분히 오늘날의 문명을 이해하고,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감화를 줄 것인지, 자녀를 교육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충분히 습득하여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 충군애국은 남자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부인이 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자각하고, 가정에서 남편을 보조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국민을 만들고, 국가사회를 위해 진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충군애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의 허영허명(虛榮虛名)을 동경하여 그 호기심에 빠져 도덕, 인륜을 무시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새로운 척하는 부인 따위는 실로 논외로 하고 싶다.<sup>25)</sup>

이상의 인용문은 근대 국민국가 형성을 위해 일본의 젠더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기서 우에스기가 신여성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새로운 현모양처주의”라는 개념은, “단순히 남자에게 복종하고, 집에서 요리라든가 재봉을 하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 즉 기존의 ‘현모양처’ 개념이 아닌, “가정에서 남편을 보조하여 남편

25) 上杉眞吉, 『新しい良妻賢母主義』, 『太陽』, 32-34쪽.

으로 하여금 국민을 만들고, 국가사회를 위해 진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다시 말해 ‘국민국가’의 ‘주체’인 남성의 ‘보조자’로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 및 위상을 확고하게 고정할 필요가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여성 반대론자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현모양처주의’를 일본 여성의 공적 이미지로 형성·유포해 가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여성은 ‘현모양처’와 상반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고착되어 가는 한편 ‘국민국가·충군애국’이라는 공적 영역과도 분리·배제되어 갔다. 이에 반해 찬성론자의 경우는 ‘현모양처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거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남성중심의 견고한 사회구조에 있음은 간과한 채 오로지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신여성 논의를 주도해간 이들이 모두 ‘남성’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신여성담론이 찬성론과 반대론으로 나뉘어 갑론을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찬성론이나 반대론이나 남성중심의 젠더질서를 여전히 유효하게 온존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여성 주체가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담론은 어떠한 양태를 보일까? 또 이것은 남성중심 미디어가 생산하고 유포한 신여성담론과 어떻게 같고 다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신여성들의 ‘노라’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 논쟁은 (신)여성의 입장에서 전개한 전통적 남녀역할=현모양처주의의 찬반논쟁이라는 점에서 남성 지식인들의 그것과 좋은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의 주장이 동시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시스템과 어떤 지점에서 충돌하고 맞물리는지 살펴보는 데에 매우 유효할 것이다.<sup>26)</sup>

26) 『세이토』는 수많은 부록을 통해 여성문제를 다루었는데, 『부록 노라』(2-1)에 이어 『부록 마그다』(2-6), 『부록 신여성, 그 외 부인문제에 대하여』(3-1), (3-2)를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하였고, 이 가운데 3권 2호의 경우 몇몇 글이 문제가 되어 발매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부록 연애와 도덕』(3-5), 『부록 부인해방의 비극』(3-8), 『부록 여성 간의 동성연애』(4-4) 등 여성해방문제에서부터 연애와 성, 나아가 동성애에 이르기까지 섹슈얼리티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노라’ 논

### 3. 신여성들의 ‘노라’ 논쟁

잡지 『세이토』가 창간되던 1911년(메이지44)은, 세계 최초로 국제적 규모의 여성 데모가 거행되는 등 세계사적으로 여성해방사상이 크게 대두된 시기였다. 일본 내부에서는 간노 스가코(管野須賀子)가 대역사건(大逆事件)으로 처형되는 등 제국주의의 여성에 대한 억압이 심화되어 갔지만, 세계 각국의 여성해방의 열기를 타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히 모색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1911년 11월 쓰보우치 쇼요 주재의 문예협회(文芸協會) 주관으로 제국극장(帝國劇場)에서 상연한 연극 입센의 『인형의 집』이 세간의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sup>27)</sup> 이 보다 앞서 『인형의 집』(『와세다문학(早稻田文學)』, 1906)을 번역하여 소개한 시마무라 호게쓰는 “서양에서 이 작품이 부인문제에 하나의 기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상연되어 충분히 이해한다면 부인문제는 여기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것”<sup>28)</sup>이라며 『인형의 집』의 여성해방사적 측면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의 예상대로 여주인공 ‘노라’는 신여성들 사이에서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세이토 동인들은 호게쓰의 발언에 호응이라도 하듯 1912년 1월, 『세이토』(제2권제1호)에 『부록 노라』를 게재하고 열띤 논쟁을 펼쳤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제(和製) 노라’라는 별칭으로 노라와 일본의 신여성을 동시에 조소하고 비난했던 대부분의 남성 지식인들과 달리 여성들의 경우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 나갔다는 점이다. 이들은 노라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이 아닌 진지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노라를 바라보고자 했다.

우에노 요(上野葉)는 『인형의 집에서 여성문제로』이라는 제목의 글에

쟁은 이 모든 논의의 첫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

27) 『인형의 집』은 이 보다 앞선 1910년 9월, 문예협회 주관으로 연극연구소(演劇研究所)에서 시연된 바 있다.

28) 金子幸代, 『日本文學新史』(近代), 至文堂, 1990, 375쪽.

서 인형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노라의 각성을 상찬하고 “노라의 자각은 세계 여성의 자각”이라며 일본 여성의 자각을 촉구한다.

현재의 사회는 그 정치조직이나 사상이나 도덕이나 법률이나 모든 것이 남자의 세계이다. 여자는 남자의 편리에 의해 관습을 강제 당하며, 남자의 편리에 의해 신조(信條)를 강제 당하고 남자의 편리에 의해 사상이 좌우된다. 또한 남자의 편리대로 법률을 제정하고 남자의 편리대로 교육을 강제하며 남자의 편리대로 비평을 쏟아 붓는다. 점차 여성의 양심, 여성의 의지, 여성의 사상, 여성의 기능(技能)은 몰각되고 저해되어 완전히 남자의 방편이 되어온 것이다.<sup>29)</sup>

현재의 사상, 도덕, 법률 등 모든 사회질서가 철저히 남성 위주로 구축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여성은 경제력을 갖추고 남성은 오랜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여성해방문제를 “여성의 남성에 대한 혁명”으로 규정하고 “전제정치에서 벗어나 입헌정치체제로 이행해 가도록 실력양성, 이성(異性)연구, 신지식의 유입”<sup>30)</sup>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가토 미도리(加藤みどり) 역시 일본 사회의 도덕적 사회적 문제는 바로 “과도기적 시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제한 후, “오른쪽으로 가야할지 왼쪽으로 가야할지 헤매고 있는 마음을 매우 통렬히 반영하고 있는 인물”, 즉 고뇌에 찬 ‘노라’에게 깊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sup>31)</sup>

한편 야스모치 요시코는 가부장제 질서를 거부하며 집을 뛰쳐나갔던 노라가 마침내 각성하여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흥미로운 설정을 통해

29) 上野葉, 「人形の家より女性問題へ」, 『青鞵』(2-1), 1912.1, 104쪽. 이하, 『青鞵』의 인용은 모두 不二出版社 復刻版(1983)을 사용함.

30) 上野葉, 위의 글, 111쪽.

31) 加藤みどり, 「人形の家」, 『青鞵』(2-1), 116쪽.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녀(노라-인용자)는 당장 먹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음악이라든가 무용 등 흥행하는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 사회를 경험하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교재를 통해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자의식은 강해지고 이와 함께 그녀는 애정에 목마를 것이다. 점차 아이를 생각하게 되고, 남편을 생각하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큰 깨달음을 얻어 집으로 돌아온다. 아니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자각한 여자는. 그리고 그녀가 바라던 기적 같은 결혼이 이루어진다. 노라는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적으로 남편을 섬긴다. 남편도 같은 마음으로 인격으로서 아내를 사랑한다. 함께 아이를 교육한다. 게다가 두 사람은 서로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서로 도와 인격의 완성을 위해 노력한다.<sup>32)</sup>

이상의 인용문을 통해 본 노라는 ‘가출’ 이후도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한 듯하다. 다양한 사회 경험과 사람과의 교재를 통해 “자의식”이 강해지고 “다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과정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특히 남편과 자식의 품이 그리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결론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이상적 결혼제도와 부부상을 제시하고자 한 필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를 테면 “자각한 여자”가 “순종적으로 남편을 섬긴다”라는 부분은 여성의 주체성 확립이라는 애초의 의도와 달리, 동시대 남성 지식인들의 ‘새로운 현모양처주의’의 주장과 변별력을 갖지 못한 채 그들이 구축해 놓은 젠더질서에 거꾸로 흡수되어 버리는 모순을 내포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우에노 요 역시 노라의 자각, 나아가 일본 여성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내인 여성은 현모양처가 아니면 안 된다”<sup>33)</sup>라는 전제를 분명히 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 확립이라

32) 安持研子, 『人形の家に就いて』, 『青鞵』(2-1), 152쪽.

33) 上野葉, 앞의 글, 108쪽.



는 문제에 앞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지탱하고 강화하는 데에 일조하게 된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노라와 입센을 비판하는 논의를 전개한 것은 히라쓰카 라이쵸였다. 라이쵸는 「노라 씨에게」라는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남편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거지 근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가출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맹목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인형의 집」에 나타난 “부부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 법률과 자신의 신념과의 충돌”은 모두 노라가 “두 가지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비극”이라고 단언한다.<sup>34)</sup> 그렇다면 라이쵸가 생각하는 신여성의 ‘자각’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 다음 문장을 통해 알아보자.

노라 씨, 저는 당신이 그것으로 자각을 했다고는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 자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일이겠습니까? 여자라는 존재가 그 정도로 인간이 된다는 것은 큰 착각이겠죠. 진정한 자기는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 그것은 헛된 환영(虛幻)의 자기를 버리는 비극으로, 남편과 아이를 버리는 것과 같이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보다 한층 비참하고 심각하고 침통한 개인으로서 당신의 내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심령의 문제입니다.<sup>35)</sup>

라이쵸는 진정한 신여성의 의미를 “헛된 환영의 자기를 버리는 비극”에서 찾았다. 그리고 노라와 같이 즉흥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입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상을 파괴”한 것은 인정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보다 더 크고 무서운 우상”을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

34) 平塚らいてう, 「ノラさんに」, 『靑鞆』(2-1), 135-138쪽.

35) 平塚らいてう, 위의 글, 137-138쪽.

시켜 버린 것”<sup>36</sup>)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일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라이쵸가 염려한 ‘무서운 우상’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부부 등의 ‘가족’ 혹은 ‘사회’ 구조 속에서 이탈한 ‘개인’ 즉 노라의 ‘가출’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러한 라이쵸의 주장은 이후 다이쇼기의 연애론을 집대성한 『근대의 연애관(近代の戀愛觀)』(1923.1)으로 화제를 모았던 구리야가와 하쿠손(廚川白村)을 통해 다시 접하게 된다. 하쿠손은 “입센이 묘사한 헤타 가브리엘이나 노라와 같은 여자”는 “비참한 충돌을 반복하는 연애의 파멸과 가정붕괴의 비극을 대표하는 자”라고 말하고, “노라식 자아를 버리는 것이야 말로 실은 진정한 자아”<sup>37</sup>)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논한다. 이어서 “신여성은 이제 새로운 아내로 또 새로운 어머니로 거듭나야 하며, 그런 가운데 모성을 옹호하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고 인생에 있어 성적(性的) 생활의 진의도 깨닫게 되는 것”<sup>38</sup>)이라고 역설한다.

하쿠손의 논점은 물론 근대적 ‘연애(관)’에 놓여 있었으나, ‘개인주의’보다 상대에 대한 ‘자기희생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이것을 ‘좋은 아내’와 ‘좋은 어머니’의 역할로 귀결시켜간 것은, 라이쵸가 ‘국민’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성별역할분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격상시켜 가고자한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후 라이쵸는 ‘모성주의’를 매개로 하여 제국주의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영합하는 수많은 담론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 사상적 토대는 『세이토』 동인으로 활약하던 시절에 이미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13년에 모성을 존중하는 엘렌 케이의 여성론을 번역하여 『세이토』에 연재했으며, 1915년에는 이토 노에(伊藤野枝) 앞으로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에서 엘렌 케이의 “The Renaissance of Motherhood(모성의 복권)”을 언급하며 “개인”과 “성”과의 투쟁 따위는 이미 “과거의 것”이니

36) 平塚らいてう, 위의 글, 155쪽.

37) 廚川白村, 『近代の戀愛觀』, 改造社, 1923, 29-31쪽.

38) 廚川白村, 위의 책, 31쪽.

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불러들여 “어머니 가장 높고 아름다운 통일과 조화로운 부인의 진정한 생활”<sup>39)</sup>을 발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라이쵸의 ‘모성주의’ 노선은 1918년부터 그 이듬해에 걸쳐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와 벌였던 ‘모성주의논쟁’을 통해 더욱 확고한 틀을 갖추어나가게 된다.

#### 4. 일본적 젠더의 특수성 -한국과의 대비를 통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노라’를 둘러싼 찬반논란, 이른바 ‘노라’ 논쟁은 여성의 주체성을 획득하고자 신여성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개진해 나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여성이 산출한 논리 역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으며 그 때문에 남성 지식인들이 신여성을 바라보는 시선과 근본적인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신여성담론이 이렇듯 균질하게 드러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 하나의 원인으로 국가 이데올로기의 개입을 생각할 수 있다.

『원시, 여성은 태양이었다(元始, 女性は太陽であった)』라는 당당한 여성해방선언과 함께 출발한 『세이토』는 전통적 가부장제에 저항하면서 여성의 주체 확립을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서 언급한 ‘노라’ 논쟁도 그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정조·처녀성, 낙태와 피임, 매매춘 등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논쟁은 기존의 ‘남성중심의 성(性) 질서’를 해체하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을 결정한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주장이었다. 이들의 행보는 동시대 신여성 반대론자를 비롯한 현모양처주의를 옹호하는 수많은 보수 논객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나 일본 여성해방사적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 진보적이었다고 할 수

39) 平塚らいてう, 『個人としての生活と性としての生活の間に』, 『靑鞆』(5-8), 14쪽, 21쪽.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여성이 주체가 된 ‘자발적’인 ‘자기형성’ 과정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여성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점차 국가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국민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로서 자기규정하고 성(性)의 자유를 방기”<sup>40)</sup>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데에 있다. 이를 테면 ‘화류병(성병)’이나 ‘나(癲)환자’의 이력이 있는 자는 국가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결혼을 금해야 한다거나, 국력에 비해 인구가 많음을 지적하며 “무책임하게 열등한 아이를 다산하는 대신 질 좋은 아이를 적게 낳도록 하라”<sup>41)</sup>는 라이쵸의 주장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앞서 언급한 ‘모성보호논쟁’에서 임신과 출산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을 부정했던 요사노 아키코를 제외하고, 라이쵸를 비롯한 야마카와 기쿠에(山川菊榮), 야마다 와카(山田わか) 등 대부분의 신여성들은 지극히 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임신, 출산 문제에서부터 성도덕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했던 듯하다. 아니 오히려 제국 일본의 상황에 맞추어 ‘국민’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성별역할분업을 재편하는 것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개입으로 여성의 주체형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들은 주변화되거나 은폐되고 일본의 여성해방사상은 방향성을 잃게 된다. 아울러 남성들이 결코 포기하지 못했던 ‘이에(家)’ 형태의 일본적 가족 메커니즘도 계속해서 작동을 이어가게 된다. 즉 서구 근대 가족의 특징이 ‘전통가족’에서 ‘근대가족’으로의 이행이라는 단선적 가족형태라고 하면, 일본은 여기에 더하여 전통적 ‘이에’를 유지하려는 기능이 포함된 보다 복합적 가족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sup>42)</sup> 이러한 특징은 동시대 식민

40) 牟田和恵, 『戰略としての女』, 新曜社, 1996, 145쪽.

41) 平塚らいてう, 『母性の主張について』, 『平塚らいてう著作集』 2, 大月書店, 1983, 157-158쪽.

42) 牟田和恵, 앞의 책, 22-23쪽 참조.

지 조선의 경우와 대비하여 볼 때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식민지 조선에서 신여성이 세간의 커다란 화두가 되는 것은 1920년대이다. 1920년 3월 잡지 『신여자』를 창간하고 ‘신여자 선언’을 통하여 자유연애와 성해방 등을 주장한 김일엽(원주), 나혜석 등이 그 주요인물이다. 일본 유학 경험이 있으며, 여성문학 동인지를 창간하여 여성해방사상을 전파하고, 입센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점 등은 세이토 동인들의 행보와 매우 닮아 있다. 또한 동시대 남성 지식인들과 미디어의 비판을 한 몸에 받았던 점도 유사하다. 그러나 이처럼 표층적으로는 일본과 상당 부분 유사성을 띠고 있으나 그것을 구성해 내는 방식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나혜석은 당시 신여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손꼽혔다. 1913년 진명여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도쿄 소재의 여자미술학교(현, 여자미술대학)에 입학하여 유화를 전공하는 한편 유학생 기관지 『학지광』에 『이상적 부인』을 게재하는 등 일본 유학 시절부터 식민지 조선의 여성해방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세이토 동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던 오다케 고키치(尾竹紅吉)라든가 아라키 이쿠(荒木郁)는 나혜석과 여자미술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직접적인 교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으나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1921년 1월 25일부터 같은 해 4월 2일에 걸쳐 『매일신보(毎日申報)』에 『인형의 집』을 번역·연재하고, 연재를 마친 후 『인형의 집』이라는 제목의 자작시를 게재한 것도 일본 유학시절 쌓아온 여성해방사상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나혜석은 이 시에서 식민지 조선의 여성을 노라에 비유하여 “아버지의 딸인 인형” “남편의 아내 인형”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견고히 닫혔던 문을 열고” “노라를 놓아”<sup>43)</sup> 줄 때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대다수 세이토 동인들의 노라 인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무엇보다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들에게서 『세이토』의 영향을 강하게 감

43) 나혜석, 「인형의 집」, 『毎日申報』1921년 4월 3일자.

지할 수 있는 것은 잡지『신여자』의 창간이다. 『신여자』 2호에 게재된 『당면의 문제』라는 제목의 글 안에는 ‘청탑(靑鞆)’의 유래를 소개하고 신문이나 잡지나 모두 남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로지 우리(여성-인용자) 붓으로 쓰고 만든 것”이 얼마나 절실한 요구인지 역설하고 있다. 이어서 “청탑들의 작품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과 동시에 파묻힌 천재들을 출현시키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내부생활을 절실하게 쫓아는 이를 제하고는 없습니다.”<sup>44)</sup>라는 말로 『신여자』의 사명감을 표출하고 있다. 일본의 신여성들은 『세이토』의 창간사를 통해 “혼란한 내적 생활에 조금이나마 통일을 이루어 가도록 (...) 세이토사의 사원은, 나와 같이 젊은 사원은 모두 빠짐없이 각자의 꺼져가는 천재를 발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여류문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류의 천재를 낳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약을 제시한 바 있다.<sup>45)</sup> 한국이나 일본이나 여성 지식인(문인)들이 ‘세이토’ ‘천재’ ‘내부(내적) 생활’ 등의 키워드를 통해 여성해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항이지만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잡지의 영향관계의 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간 신여성들의 공통의 고민과 주장이 어떤 배경 하에서 등장했고 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의 세이토 동인들의 ‘노라’ 논쟁에서 보았듯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현모양처주의가 일본 여성의 주체형성에 변용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 현모양처주의는 식민지 조선의 여성 주체형성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신여자』가 등장하는 1920년을 전후한 시기는 주로 일본유학 생층으로 구성된 지식인들에 의해 이론화 과정을 거친 1910년대의 실력양성운동론이 ‘문화운동’이라는 이름하에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있었다. 즉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1914-1918),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3·1운동의 실패 등이 맞물려 지식인들 사이에서 실력양성운동론이 다시 대두

44) 心史, 「當面の問題」, 『新女子』 2호, 16쪽.

45) 『靑鞆社概則』, 『靑鞆』(1-1), 132쪽.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일본 제국의 새로운 식민지 지배정책(문화정치)에 맞춘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이광수, 송진우, 이돈화, 김기전 등이 주도하고 『동아일보』와 『개벽』이 그 거점이 되었다. 이들이 전개한 ‘문화운동’의 주요 슬로건은 신문화건설 · 실력양성론과 정신개조 · 민족개조였다.<sup>46)</sup> 이러한 주장은 구사상, 구도덕, 구제도를 타파하라는 1910년대의 논리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여기에 개조론, 문화주의, 사회진화론 등의 논리를 더하여 보다 완결된 형태를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조의 논리를 앞세운 실력양성론자들의 주장이 제국주의 논리와 변별력을 갖지 못한 데에 있다. 예컨대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라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조선사회의 개조 · 개량만을 역설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개벽』 23호, 1922.5)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신여자』의 경우, 민족의 자립과 사회의 개조라는 사명에 더하여 여성의 주체성을 확보해야 하는 더욱 복잡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해방이라는 문제에 민족의 자립과 사회의 개조라는 문제가 결부되면서 여성의 주체성 확립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우선 남성에게 “승순(承順)”하고, “내조”를 잘하며, “근검” “절약”하여 “일가의 경제”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때에 “신여자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은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한다.

우리는 現代朝鮮社會를 標準하여 言함이니 今後의 時勢變動과 人文發達에 依하여 어떠한 趨勢로 向하든지 當分間은 男子에게 承順하여 그의 同情下에 漸進的 態度를 取할 일.<sup>47)</sup>

勤儉은 人生生活上 最大 重責이니 家庭에서 男子를 內助하여 家事에 勤儉하고 衣服飲食을 節約하여 一家의 經濟를 維持하여 一般 社會에서

46) 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 연구』, 역사비평사, 1997, 176쪽.

47) 『新女子의 社會에 對한 責任을 論함』, 『新女子』창간호, 8쪽. 이하, 원문은 해독의 편리를 위하여 띄어쓰기를 하였고 필요한 곳은 현대 문어체로 바꾸었다.

新女子의 價値를 認定케 할 일.<sup>48)</sup>

우리는 人類社會의 一人이오, 家庭의 一人이라. 우리의 한 사람이 自覺을 아니하면 이 人類社會에는 참 意味의 사람이 하나 없어지는 것이오, 家庭에는 健全한 사람이 하나 缺하는 것이니 家庭으로부터 社會에 그 影響이 어찌 적다고만 하리오. 朝鮮民族에 對하여 그 關係가 트도다. 故로 이런 女子가 自覺함은 이러한 意味에서 한편으로는 女權을 伸長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朝鮮의 文化를 開拓함이라 하노라.<sup>49)</sup>

改造! 改造! 이 부르짖음은 全世界의 뜻으로부터 끝까지 높고 크게 외칩니다. (...) 그러면 무엇부터 改造하여야겠습니까. 무엇무엇 할 것 없이 통틀어 社會를 改造하여야겠습니까. 社會를 改造하려면 먼저 社會의 原素인 家庭을 改造하여야 하고 家庭을 改造하려면 家庭의 主人될 女子를 解放하여야 할 것은 勿論입니다.<sup>50)</sup>

이상의 인용문은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담론이 ‘여성(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여성(성)’이 ‘민족’ 혹은 ‘개조’라는 계몽담론에 흡수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안에는 구도덕, 구사상, 구제도의 타파와 자유연애, 성해방 등의 논점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며, 가정·사회·민족·여권을 동일한 선상에 놓는 것으로 각각의 개념이 갖는 의미와 차이를 무화(無化)시켜 버린다. 여성의 주체화 과정이 오히려 주변화 과정으로 역전되는 현상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일하며 이로 인해 남성중심의 젠더 질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도 유사하다.

그런데 이 동일한 구조 속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일본적 젠더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성’이라는 장치의 견고함이다. 일본의

48) 위의 글, 『新女子』창간호, 7쪽.

49) 『女子의 自覺』, 『新女子』3호, 3쪽.

50) 『創刊辭』, 『新女子』창간호, 3쪽.



여성해방담론은 이후 총력전이라는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성’이 더욱 강조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여성의 주체화 문제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견 ‘국가’와 무관한 것처럼 보였던 『세이토』의 주장이나 내용이 실은 제국 일본의 국가사업과의 긴밀한 관련성 속에서 추진된 일면을 내포하고 있음을 예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 5. 결론

1910년대 미디어에 나타난 신여성 관련 기사를 총체적으로 시야에 넣어 살펴본 결과, 근대 일본의 여성 주체 형성과정에 보이는 불균형과 불안정성의 가장 큰 원인은 ‘남성·제국주의’의 개입으로 인한 성별역할분업의 근대적 ‘재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 『남성중심 미디어의 신여성 논쟁』에서는 『태양』을 비롯한 당대 메이지급 미디어가 기획하고 유포한 신여성을 둘러싼 찬반양론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연 누가 어떠한 의도로 신여성을 유형화하고 본질화하고자 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여성 반대론자의 경우, ‘현모양처주의’를 일본 여성의 공적 이미지로 형성·유포해 가는 데에 주력하였고, 찬성론자의 경우는 ‘현모양처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거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남성중심의 견고한 사회구조에 있음을 간과한 채 오로지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한계를 보임으로서 기존의 남성중심 사회규범 및 젠더 질서를 유지·강화하는 데에 일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은 담론의 생산자가 남성 주체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때 담론은 어떠한 양태를 띠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장 『신여성들의 ‘노라’ 논쟁』은 바로 그러한 점에 착안한 분석이다. (신)여성 주체가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성의 주체성 확립이라는

애초의 의도와 달리 ‘남성중심주의적인 지(知)의 질서’에 거꾸로 흡수되어 버리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그들과 견고한 공범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현모양처주의’의 강화를 통해 ‘민족의 어머니’, ‘국가적 모성’과 같은 허구의 관념을 산출하여 여성을 국민국가로 통합해 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정황들이 그것이다.

4장 『일본적 젠더의 특수성 -한국과의 대비를 통하여』에서는 일본의 신여성 문제가 비단 일본 내 문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실제로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담론은 표층적으로는 일본과 상당 부분 유사성을 띠고 있으나 그것을 구성해 내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 반(反)식민지 민족주의가 구축한 새로운 가부장제 논리로 분열적으로 흡수되어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언뜻 보기에는 ‘남성·제국주의’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성’이라는 장치가 기능적으로 작동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젠더 위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여성담론이 갖는 복합적 측면을 노정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신여자』라는 단일한 매체만으로 일본의 신여성이 구성되는 맥락이 한국의 그것과 다르다고 판단하기에 논의가 아직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이 부분은 한국의 사회학이나 국문학 분야에서 쌓아온 신여성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다.

이 글에서는 우선 1910년대 신여성담론의 일본적 현상을 파악하는데 주력했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한국을 비롯한 중국, 타이완 등 동아시아 여성의 역사적 상황, 젠더, 근대성, 내셔널리즘 등의 동향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인 일본 신여성담론의 지평을 가늠하는 일이 될 것이다.<sup>51)</sup>

51) 이런 의미에서 김수진 『신여성현상의 세계적 차원과 사회적 차이 -영국, 일본, 그리고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한국여성학』 제22권, 한국여성학회, 2006)의 논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 참고문헌

### 1. 일본어 자료

- 『新潮』『新しい女』(1912.9)
- 『太陽』『近時之婦人問題』(1913.6)
- 『中央公論』『婦人問題号』(1913.7)
- 『東京朝日新聞』『女學生』(1913.2.28-3.24)
- 『青鞜 復刻版』, 不二出版, 1983.
- 坪内逍遙, 『所謂新しい女』, 精美堂, 1912.
- 内田魯庵, 『『新しい女』の第一の努力 因習の風俗習慣を驅逐せよ』(『太陽』1913.6)
- \_\_\_\_\_, 『所ゆる新しい女の解釋』(『新潮』1912.9)
- 藤代素人, 『婦人問題管見』(『太陽』1913.6)
- 松本亦太郎, 『若い女の將來』(『太陽』1913.6)
- 島村脩月, 『個性獨立が根本問題』(『太陽』1913.6)
- 安部磯雄, 『婦人參政權問題』(『太陽』1913.6)
- 永井柳太郎, 『『新しい女』を論ず』(『中央公論』1913.7)
- 佐藤紅緑, 『新しき女即ち臭き女也』(『新潮』1912.9)
- 三宅雪嶺, 『問題の提供者としての新しい女』(『太陽』1913.6)
- 馬場孤蝶, 『新しき女を歓迎せん』(『新潮』1912.9)
- 秋元興朝, 『女の天性を無視したる新しい女』(『太陽』1913.6)
- 内田康哉, 『婦人界の新傾向』(『太陽』1913.6)
- 建部遜吾, 『社會學者の觀たる婦人問題』(『太陽』1913.6)
- 茅原華山, 『女子教育近狀』(『万朝報』1910.11.1)
- 上杉眞吉, 『新しい良妻賢母主義』(『太陽』1913.6)
- 上野葉, 『人形の家より女性問題へ』(『青鞜』2-1)
- 加藤みどり, 『人形の家』(『青鞜』2-1)
- 安持研子, 『人形の家に就いて』(『青鞜』2-1)
- 平塚らいてう, 『ノラさんに』(『青鞜』2-1)

- \_\_\_\_\_, 『個人としての生活と性としての生活の間に』(『青鞜』 5-8)
- \_\_\_\_\_, 『母性の主張について』, 『平塚らいてう著作集』 2, 大月書店, 1983.
- \_\_\_\_\_, 『元始, 女性は太陽であった』下巻, 大月書店, 1972.
- 廚川白村, 『近代の戀愛觀』, 改造社, 1923.
- 金子幸代, 『日本文學新史』(近代), 至文堂, 1990.
- 牟田和恵, 『戰略としての女』, 新曜社, 1996.

## 2. 한국어 자료

- 나혜석, 『인형의 집』(『每日申報』 1921.4.3.)
- 心史, 『當面の 問題』(『新女子』 2호, 1920.4)
- 『新女子의 社會에 對한 責任을 論함』(『新女子』 창간호, 1920.3)
- 『女子의 自覺』(『新女子』 2호, 1920.5)
- 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 연구』, 역사비평사, 1997.

## Abstract

### The Form of Discussion on New Women in Modern Japanese Media

Son, Ji-Yeon

The interest of this passage is based on the discussion of New Women 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modern Japanese papers, magazines, and medias. It is focused on who categorized and essentialized it with what intention, furthermore, where did the cause originate if the discussion of New Women didn't appear homogenized, and also, what implication it had when compared to Chosun Colony at the same period, then what the unique situation was of Japanese gender. It seems densely that the argument of New Women, unfolded in modern Japan, was planned and measured within the boundary of civil nation. Of course, 'the good wife and wise mother' and 'maternal instinct' was applied as resource for that good idea.

First, the discussion surrounding New Women, planned and distributed by the major medias like 『Taiyo』, 『Shincho』, pointed out that it may seem like the discussion was divided into pros and cons, but it actually connoted the common aspects on maintaining or enhancing the existing social norm centered on men and the order of gender solidly whether they are pros or cons. We can see here the point, that the producer of this argument was masculine, was greatly active.

However, from the floor where women present themselves on their main thoughts appeared without an exception. In other word,

the argument that New Women produced were not fully free from patriarchal ideology mentioned above even if New Women themselves tried enthusiastically expressed the argument, such as chastity, abortion, contraception, or prostitution, to gain their independence left huge legacy in liberation of women in Japan.

It is a bigger problem when this aspect, the unique situation of Japanese gender, is contrasted to the Chosun Colony of same period. For instance, let's say the New Women of Chosun Colony claimed explicitly that woman should be limited to role of 'the good wife and good mother' as the instrument for the independence of people by ratifying the category, 'remaking the people', which was a trend, as it was, and resolve the reality of colony, but in Japan, though their attitude looked irrelevant to the 'nation', by enhancing the idea of 'the good wife and good mother' into fabricated ideas such as 'People's Mother' or 'Nationally Maternal Instinct', they firmly supported the ideology of ruling by androcentrist and imperialism.

It is to say that it exposed more complex aspects than the gender rank,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he New Women argument.

Key words : Argument of Korean · Japanese New Women, Seito, New Women, Principle of Good Wife and Good Mother, National Motherly Instinct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